

웃음·눈물·감동 ... 광주극장에 있다



왼쪽부터 영화 '창밖은 겨울'·'영화감독 노동주'·'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24일~다음달 1일까지 프랑스영화 주간 기념 영화 등 7편 상영 광주출신 시각장애인 다큐 '영화감독 노동주' 25일 관객과 대화

광주극장이 연말 다채로운 상영작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광주극장은 24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프랑스영화 주간과 광주퀴어문화주간 등을 기념하는 영화 7편을 선보인다.

먼저 24일에는 영화 '창밖은 겨울'을 선보인다. 고향 전향로 내려와 버스가 터진 석우와 유실물 보관소를 담당하는 영애가 만나 사랑을 싹 틔우는 내용으로,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의 한 선화와 제 40회 영화평론가협회 신인남우상 주인공 공 광민규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25일에는 광주출신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의 이야기를 다룬 임찬익 감독의 '영화감독 노동주'를 상영한다. 노 감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발성 경화증으로 쓰러져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까지 했던 수재였기에 시각장애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감독은 다른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희망

이 되고자 조선대 환경공학과에 입학해 모의 토익 만점, 백약장학생, 자격증 10여개 등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던 취업에 오래전 꿈이었던 영화감독을 떠올리게 됐고 그 길로 광주 시청 자미디어센터를 찾아 카메라 기술 등을 익히며 영화감독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노 감독은 이후 데뷔작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를 비롯해 단편영화 4편을 제작했다. 이를 눈 여겨 본 임찬익 감독은 노 감독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영화감독 노동주'다. 영화는 25일 오후 4시에 상영되며 이후에는 임 감독과 노 감독, 목연화 프로듀서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다음날 개봉하는 '아마겔트 타임'은 1980년 뉴욕을 배경으로 꿈과 우정,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 '폴'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자전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앤 해서웨이, 제레미 스트롬, 안소니 홉킨스 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프랑스 영화 주간'을 맞아 27일과 12월 3일 각각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120BPM'을 상영한다.

제72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삶과 예술, 사랑에 타올랐던 두 여인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120BPM'은 1989년 파리를 배경으로 사랑하고 투쟁하는 이들을 위한 찬가를 그려내고 있다.

대만 영화 '청춘시련'도 12월 1일 개봉한다. 제 58회 금마장 영화제 공식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 청춘의 사랑과 이별, 뜨거움과 외로움을 서로 다른 네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장 로맨스다.

예매는 디트릭스(<https://www.dtryx.com/main.do>)에서 가능하다.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조소 6000원, 실버 5000원. 문의 062-224-585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옥진 여사의 삶과 예술 회고 강연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 교수, 26일 영광 공공도서관

공옥진(1933~2012)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이단아이자 특별한 존재다. 그는 우리의 전통적인 소리와 춤, 연기를 토대로 민중의 애환과 장애인의 서러움을 표현했다. 전무후무한 '1인 창무극'을 창시했던 예인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의 예술정신과 창무극 기예는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죽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받지 못한 채 지방문화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공옥진 여사의 삶과 예술을 기념하고 그가 남긴 1인 창무극 계승 방안 등을 제안하는 강연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마천학회와 영광군 '천년지대'는 공옥진의 삶과 예술을 회고하는 강연을 오는 26일(오후 2시) 영광 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되는 '달마로' 행사에서 할 예정이다.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 김영수 교수는 강연에서 공옥진의 해외공연 자료에 관한 현황 보고와 향후 공옥진을 기념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아울러 우리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판소리를 대중화하고 나아가 국제화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제안도 할 예정이다.



공옥진 여사 생전 공연 모습. <김영수 교수 제공>

행사는 오후 2시에 기념공연이 진행된다. 시각장애인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 팀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가 펼쳐진다. 이어 기념촬영과 공옥진의 소리(홍보가 중 놀보 심술 대목) 감상이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재종 시인 초청 '비타포엠 낭송회'

내일, 시청자미디어센터... 정윤천·최승권 시인 등 출연

제57회 비타포엠(회장 정양주) 시 산문 낭송회가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초청 시인은 담양 출신 고재종 시인.

고재종 시인은 이번 낭송회에서 '글과 예술과 인생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미승 시인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낭송회에서 고 시인은 일상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타자의 슬픔을 연민하는 것에 대한 내용 위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고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알강도 아위는 이그리움',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 '꽃의 권력'과 시평집 '시를 읊자 미소 짓다' 등을 펴냈으며 소설

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녹색생명상 등을 수상했다.

이어 시 산문 낭송 시간에는 정윤천 시인이 '소년'을 엄수경 씨가 '코 없는 박수 삼신'을, 김황흠 시인이 '뭘든지 튀겨드려요' 등을 낭송한다.

공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우물안개구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애당초 의미 같은 건 없었지', '연차 좀 씹시다'를 선보인다. 이어 시 낭송 시간에는 최승권 시인이 '무정식당 삼구나무'를, 한영희 시인이 '응시'를, 이봉환 시인이 '개사돈'을 낭송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광주퀴어문화주간'

26일까지 광주 시내 일대 광주극장서 레즈비언 다큐 상영 '퀴어 디제잉 파티' 등 진행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2022 광주퀴어문화주간'이 26일까지 펼쳐진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2 광주퀴어문화주간'이 '우리라는 무지개'를 슬로건으로 광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먼저 23일 오후 2시에는 전남대 도서관 정보마루 1층 우미 컨퍼런스홀에서 '퀴어 친화적인 광주를 상상하다!'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진행된 '광

주광역시 성소수자 Be 현실보고서'를 토대로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5일에는 오후 7시 10분 광주극장에서 70대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두사람'을 상영한다. 1986년 재독여성대회 수련회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져 반평생을 함께 보낸 커플 이수현과 김인선의 이야기로, 인물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활동을 균형있게 담았다. 상영 이후에는 반박지는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대안공간 공공연에서 '퀴어 디제잉 파티'가 열린다. 디제이팅 '심해'와 게스트 '쉐이드 서울'이 함께하며 놀랄볼 및 청소년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행사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2022광주퀴어문화주간.lrl.kr>)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384-2016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화 '두사람'

어문화주간.lrl.kr)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384-2016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소리꾼에게 배우는 판소리 한 대목

주소연 소리꾼 초청 강연 24~2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하반기 마지막 인문학 강좌는 주소연 소리꾼이 강연을 한다. 오는 오는 24일~25일(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문화예술 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주소연 소리꾼은 '판소리 소리 듣는 데이'를 주제로 판소리 기본 개념 이해를 비롯해 직접 한 대목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 소리꾼은 전남대학교 국악과 및 목포대학교



교과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며 광주시립극단 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예술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한국판소리보존회광주지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주민(성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 희망자는 24일까지 선착순. 문의 062-670-7968. /박성천 기자 skypark@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